
9 월 독일지역 관광시장동향

■ [동향] 체험여행 플랫폼 GetYourGuide, 카카오페이 도입 및 AI 어시스턴트 예약 지원

- 베를린에 본사를 둔 여행 체험상품 플랫폼 GetYourGuide 가 ‘Unlocked Summit Berlin’ 에서 현지 상품 공급업체를 위한 신규 기능을 발표함(2026 년 가을부터 적용). GetYourGuide 에 따르면 전 세계 체험여행(투어·액티비티) 시장 규모는 현재 약 4,240 억 달러로 추산됨.
- 주요 신규 기능은 다음과 같음.
 - 공급업체별 예약 패턴에 기반한 상품 성과 분석
 - 신규 상품 등록 시 AI 가 사진과 설명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기능
 - 투어 참가자 전원에게 한 번에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
 - 결제수단 확대: 한국의 카카오페이를 비롯해 알리페이, 다나(Dana) 등 아시아 현지 결제수단 추가
- 또한 Gemini, ChatGPT 플러그인, Claude 커넥터를 통해 여행객이 AI 어시스턴트 화면을 벗어나지 않고 체험상품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게 됨. 이는 여행 계획과 예약 단계에서 AI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는 추세를 보여줌.

■ [동향] ERGO 여행자 안전 보고서: '안전'이 여행지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부상

- ERGO 여행보험의 최신 여행자 안전 보고서에 따르면, 연 1 회 이상 여행하는 응답자의 약 93%가 안전을 ‘매우 중요’ 또는

‘중요’하다고 답함. 올해 처음 조사 항목에 포함된 ‘전쟁·정치적 불안·무력충돌’에 대한 우려는 38%로, 범죄(40%)와 거의 같은 수준의 주요 여행 걱정거리로 꼽힘.

- 응답자의 41%는 여행이 예전보다 덜 안전하게 느껴진다고 답했으며, 이 중 66%는 이러한 인식이 향후 12개월간 여행 계획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함. 구체적으로 63%는 특정 목적지를 피하거나 안전한 국가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, 39%는 현지 치안이 악화되면 여행을 조기 종료하며, 35%는 독일 외교부 여행경보 등을 더 주의 깊게 확인한다고 답함.
- 이러한 흐름은 독일 국내관광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해, 2026년 장기 여행지로 독일을 꼽은 비율이 전년 22%에서 30%로 상승함.

■ [동향] Dertour 2026년 하계 예약 분석: 라스트미닛 예약 비중 확대

- 독일 대형 여행사 Dertour 그룹의 2026년 하계 시즌(6~9월) 예약 분석 결과, 세계 각지의 위기 상황과 유럽의 폭염에도 독일 여행객들은 비교적 차분한 여행 수요를 보였으나 예약 시점은 다소 늦춰진 것으로 나타남. 출발 50일 이내에 예약한 ‘ラスト미닛 예약객’ 비중은 28.5%로 전년 동기 대비 2.5%p 증가했으며, 이 중 약 60%는 출발 28일 이내에 예약한 것으로 집계됨.
- 출발 51~150일 전에 예약한 중기 예약은 32.5%(-1.5%p), 출발 5개월 이전에 예약한 조기에 예약은 39%(-1%p)로 나타나, 여전히 조기에 예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. 여름방학 기간 주간 평균

출발객은 약 5,300 명으로 전년 대비 600 명 증가함.

- 단·중거리 인기 목적지는 튀르키예, 스페인, 그리스, 독일, 이집트 순이었음. 장거리는 인도양 휴양지(몰디브, 모리셔스, 세이셸)가 1위를 차지했고, 북미와 태국이 전년과 마찬가지로 2·3위를 기록했으며, 카리브해와 동아프리카가 뒤를 이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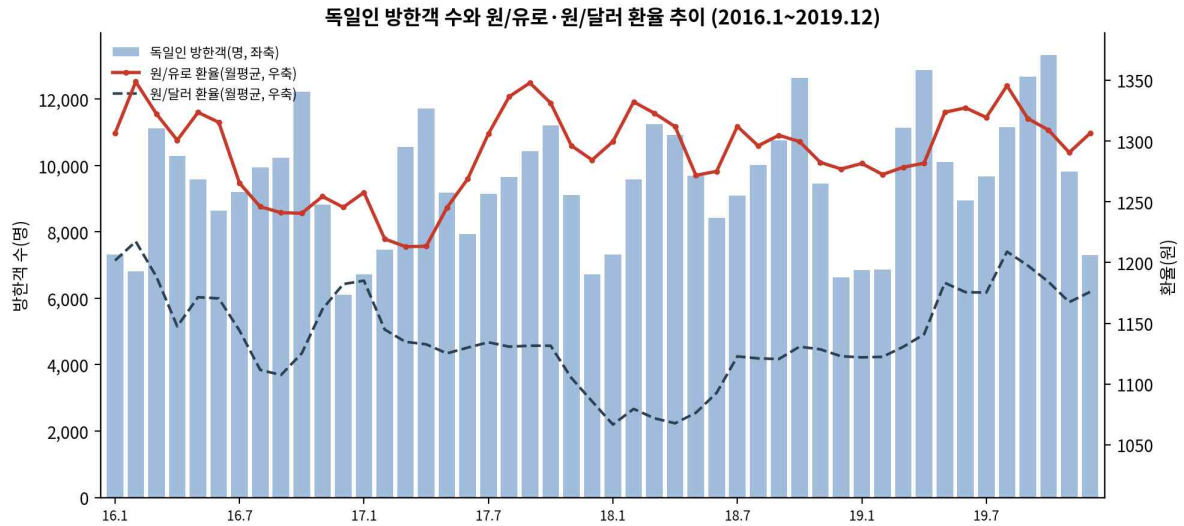
■ [동향] 독일 7월 숙박일수 3.2% 증가, 1~7월 누적 역대 최고치 경신

- 독일 연방통계청(Destatis) 잠정 집계에 따르면 2026년 7월 독일 내 숙박시설의 숙박일수는 5,840만 박으로 전년 동월 대비 3.2% 증가함. 내국인 숙박은 4,770만 박, 외국인 숙박은 1,080만 박으로 모두 3.2%씩 늘어남.
- 1~7월 누적 숙박일수는 2억 8,210만 박으로 전년 동기 대비 0.9% 증가했으며, 종전 최고치였던 코로나 이전 2019년 같은 기간(2억 8,110만 박)을 0.4%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. 이 중 내국인은 2억 3,500만 박(+0.8%), 외국인은 4,710만 박(+1.0%)임.
- 지난달 보고한 6월 숙박일수 감소(-2.9%)에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, 앞서 소개한 ERGO 조사의 국내여행 선호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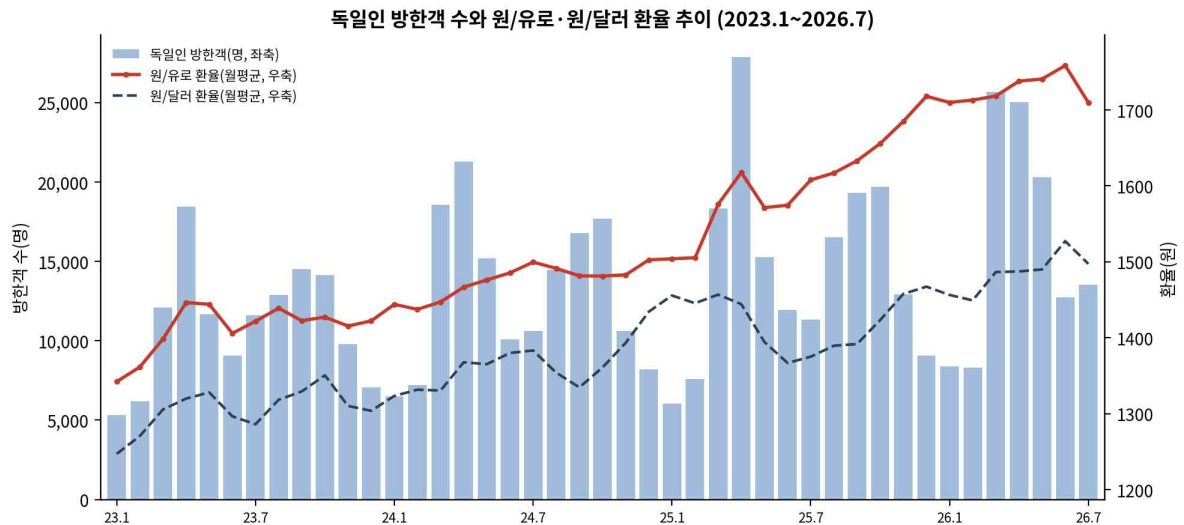
■ [분석] 원/유로 환율과 독일인 방한객 수의 관계: 2016~2019년 vs 2023~2026년

- 코로나 이전(2016.1~2019.12)과 이후(2023.1~2026.7) 두 기간에 대해 원/유로·원/달러 환율(일별 매매기준율의 월평균)과

독일인 방한객 수의 월별 관계를 비교함.



[그래프 1] 독일인 방한객 수와 원/유로·원/달러 환율 추이 (2016.1~2019.12)



[그래프 2] 독일인 방한객 수와 원/유로·원/달러 환율 추이 (2023.1~2026.7)

- (코로나 이전) 원/유로 환율이 월평균 1,213~1,349 원의 좁은 범위에서 오르내렸고, 독일인 방한객 수도 월평균 약 9,500 명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임. 두 값의 상관계수는 원/유로 0.14, 원/달러 -0.02 로, 환율과 방한객 수 사이에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.
- (코로나 이후) 원/유로 환율이 2023년 1월 1,342 원에서

2026 년 6 월 1,758 원까지 꾸준히 상승(유로 강세)하는 동안 독일인 방한객 수도 월평균 약 13,500 명으로 늘어남. 같은 기간(1~월)끼리 비교하면 방한객은 2023 년 74,375 명에서 2026 년 113,944 명으로 53% 증가했고, 원/유로 환율은 평균 1,403 원에서 1,727 원으로 23% 상승함(원/달러는 1,294 원에서 1,485 원으로 15% 상승). 상관계수는 원/유로 0.40, 원/달러 0.34 로, 유로 환율이 방한객 수와 좀 더 뚜렷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보통 수준의 양(+)의 상관관계를 보임.

- 다만 방한객 수는 봄(3~4 월)과 가을(9~10 월) 성수기에 크게 늘어나는 계절성이 강하고, 코로나 이후 기간에는 한류 확산과 여행 수요 회복 등 다른 요인도 함께 작용함. 따라서 이번 결과는 “유로 강세 시기에 독일인 방한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된다”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.

(참고자료) 정부 공공기관 통계자료, 관광 전문지 보고서 및 언론 기사 등

-<https://www.fvw.de/touristik/vertrieb/unlocked-summit-berlin-get-your-guide-stellt-neue-features-fuer-veranstalter-vor-264567>

-<https://www.fvw.de/touristik/datenanalyse/sicherheitsreport-von-ergo-wovor-sich-reisende-sorgen--und-welches-ziel-davon-profitiert-264595>

-<https://www.fvw.de/touristik/datenanalyse/dertour-auswertung-mehr-spaetbucher--urlaubsplanung-verschiebt-sich-264618>

-https://www.destatis.de/DE/Presse/Pressemitteilungen/2026/09/PD26_324_45412.html

-한국관광 데이터랩(독일 국적 방한 외래관광객), 2026.9.24. 조회

-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(ECOS) 3.1.1.1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(일별 매매기준율), 2026.9.24. 조회